

4 인천독립 40년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17일(목)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 자	• 위생정책팀장 김혜정 ☎440-2761 • 담당자 박미숙 ☎440-276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행복을 전하는 감동 릴레이’ 지속 추진**  
 - 「비대면, 사랑의 음식 나눔」 전달식 개최 -  
 -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 등 직접 방문해 짜장면, 떡국 등 음식 나눔 봉사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동구 보라매보육원에서 관내 10개소 아동 복지시설 575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랑의 음식(떡·빵류)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창남 인천시 위생정책과장, 주만덕 대한제과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 김진천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 우치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2017년부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외계층과 연계하는 ‘행복을 전하는 감동릴레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어르신·노숙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짜장면, 떡국, 돈까스, 빵, 떡 등의 음식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감동 릴레이 사업을 추진한다. 6월부터 12월까지 떡류와 제과협회에서 관내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월 2회 떡·빵류의 간식을 나눔 할 예정이다.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여러 단체나 개인의 봉사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소외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비대면 음식 나눔 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에게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건강한 나눔 문화 교육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